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군위안부문제에 관련한 운동단체들의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¹⁾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군 위안부 문제는 50여 년이 지난 1980년대 말에야 사회운동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은 한국의 여성단체에서 제기→한국의 타 시민단체와 협력/일본 여성단체와 연대→일본의 타 시민단체의 참여/타 아시아 피해 국과 연대→국제 NGO들의 협력의 단계를 거쳐 발전했다. 시간상의 큰 차이는 없으나, 각 단계는 지역의 확대, 가치지향의 확대와 함께 구분 가능하다. 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민족의 이중적 착취에 기인한 문제이면서, 국가가 시민에게 가한 폭력이고, 보다 보편적인 인권침해의 하나로도 파악된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지향, 목표들이 하나의 단체 안에서 나타나고, 또 다른 지향을 가진 단체들이 서로 연대·갈등하는 것이다. 대체로 이 운동을 발화시킨 한국여성운동은 페미니즘에 기초하여 민족주의 지향을 포괄하여 확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아시아 및 세계여성운동들과 페미니즘에 기초한 연대를 구축해왔다. 다른 한편 국내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민족주의 정서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면서, 보다 폭넓은 인권관념에 기초한 시민단체(노동조합을 포함하여)들과 협력하게 되었다. 북한과의 연대는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결실 중의 하나인데, 그 기반이 민족주의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내 시민 및 북한과의 민족주의에 기반한 연대로부터, 페미니즘의 의식과 인권관념 및 역사의식이 성장하게 된 것은 이 운동의 성과로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여성단체들과의 연대에서 식민주의의 문제가 사상되어 온 것은 지적되어야 하며, 국내에서도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이 다소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다중적 지향이 하나의 운동에서 연대·갈등하는 과정은 운동과 이론에서 모두 면밀히 고찰·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군위안부문제, 페미니즘, 민족주의, 인권, 평화주의, NGO

I. 문제제기

군 위안부 문제는 50여 년이 지난 1980년대 말에야 사회운동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여성운동단체에 의해 제기된 이 문제에, 곧바로 일본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많은 NGO 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되었다. 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민족의 이중적 착취에 기인한 문제이면서, 국가가 시민에게 가한 폭력이고, 보다 보편적인 인권침해의 하나로도 파악된다. 따라서 다양한

* 이 논문은 2000년 서울대 국제지역원 국제지역연구 지원사업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가치지향, 목표들이 하나의 단체 안에서도 나타나고, 또 다른 지향을 가진 단체들이 서로 연대·갈등하는 것이다.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여러 단체들의 가치지향은 대략 페미니즘, 반(反)제국주의/반식민주의/민족주의, 인권의 관점, 평화주의,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나의 단체에서 이 지향들의 어느 하나가 지배적이거나, 두개 이상이 결합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단체 내에서도 여러 가치지향이 조합되기도 하고 또 갈등하기도 하며, 다른 지향을 가진 단체들은 군 위안부 문제라는 동일한 이슈를 위해 연대하지만, 서로 다른 목표를 위해 일하고, 따라서 때로는 갈등하고, 또는 협력과정에서 중요한 측면을 보류하기도 한다. 그동안 함께 일해왔던 한국과 일본 및 아시아 피해 국의 단체들이 ‘국민기금’¹⁾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것이나, 한국 운동의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의 문제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조명되는 점, 국제운동에서 식민지 문제가 사상(捨象)되고 있는 점 등은 그 중요한 예다.

이 글에서 10년여 계속되어 온 운동의 모든 사실을 논의할 수는 없다.²⁾ 다만 이 글은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국제화되어 간 과정과 여러 다른 가치지향을 가진 단체들로 확대된 과정 및 그러한 과정에서 제 단체들이 경험한 연대와 갈등의 국면을 정리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어떠한 사회운동이 다른 가치지향과 목표를 가진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힘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글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다.

이 글은 주로 각 단체들에서 발행한 팜플렛 및 국제기구 문서 등 일차자료를 참고했다. 보다 중요하게는 여러 운동단체 성원과의 심층 면담과, 또한 필자 자신의 운동에의 참여관찰이 폭넓게 이용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사회운동의 가치지향 및 그에 따른 단체들 간의 연대와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은 한국의 여성단체에서 제기 → 한국의 타 시민단체와 협력/일본 여성단체와 연대 → 일본의 타 시민단체의 참여/타 아시아 피해국과 연대 → 국제 NGO들의 협력의 단계를 거쳐 발전했다. 시간상의 큰 차이는 없으나, 각 단계는 지역의 확대, 가치지향의 확대와 함께 구분 가능하다.

1)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이하 국민기금으로 약칭)은, 정부가 그 절차를 두고 모금을 민간에서 하여,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분배한다는 취지로 1995년에 일본정부가 설립한 것이다. 이것은 국가 배상과 처벌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피해자와 운동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반대 속에 국민기금 측은 비밀리에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받아들일 것을 권유해왔으며, 이후 수년간의 운동은 국민기금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 했다(정진성, 1998 참조).

2)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정부와의 관계는 이 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했는데, 이 글에서는 운동단체들간의 연대와 갈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논의에서 제외시켰다.

II. 한국여성운동의 문제제기: 페미니즘의 민족주의 포섭

반세기 이상 침묵 속에 묻혀 있던 군 위안부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낸 것은 1980년대 후반 크게 성장한 한국의 여성운동이었다. 1980년대 말에 자신이 ‘정신대’³⁾로 끌려갈 위기를 넘긴 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던 한 여성 연구자와, 매춘관광문제를 위해 활동하던 교회여성연합회, 그리고 1970년대부터 한국의 여성운동의 싹을 키워오던 여성운동가의 만남으로 이 운동은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군 위안부 문제를 위한 운동은, 구체적인 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연구와 그 문제의 현대적 파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꾸준히 성장해온 여성운동이 연결시키고 사회 운동화 시킨 것이다. 다소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1990년 여성단체연합(여연)을 비롯한 22개 여성단체가 포함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결성되었으며 이후 이 운동은 정대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연이 28개의 단체를 회원으로 가진 가장 중요한 연합체므로, 정대협은 사실상 한국의 주요 여성단체를 대부분 막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근대적 여성운동은 개화기에 계몽주의적 사고의 확산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말해진다. 주로 교육의 보급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화기 여성운동은 일제시기에 보다 다각화되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노동운동 등 전체 사회변혁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서, 그리고 신여성운동과 같이 독자적 운동으로서 발전한 여성운동은 해방 후 다소 침체했다. 격심한 변동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틈에서 자란 여성운동은 그러한 사회운동으로부터 독립하여 여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회 변혁 운동의 흐름에서 벗어나면서 정부 편에 서는 경우도 생기면서 여성운동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970년대에 들어 여성노동자 운동, 기지촌 여성문제, 매춘관광반대 등 민주화 운동과 궤를 같이 하는 여성운동이 착실히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이러한 운동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체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성장한 여성운동이, 1980년대 후반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차츰 여성 독자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는 여유를 갖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들면서 독자적 여성운동은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되었다(이승희, 1990; 이효재, 1989; 정진성, 1996 등). 군 위안부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대협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이 운동은 1990년대의 한국 여성운동이 명확하게 표방하기 시작한 페미니즘의 의식과 함께, 한말, 식민지 시기의 여성문제를 이해하는 대부분의 방식에서 볼 수 있는대로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3) ‘군위안’로 이 문제를 지칭하기로 합의하기까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식민지 시기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여성에 대한 강제동원을 ‘정신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개념문제에 대해서는 정진성(2001c)의 저서를 참조할 것.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다. 정대협이 1992년 처음으로 유엔 인권소위에 제기한 문건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다. 여기서 군 위안부문제를 여성 인권 침해의 문제로 이해하면서 전쟁과 식민주의라는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다.

“1910년 일본에 합병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혹독하고 억압적인 일본의 지배 아래 고통을 받았다. 이 기간동안 한국 민족에게 갖은 수탈과 억압이 가해졌지만 한국의 여성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걸쳐 있던 일본 군대의 성노예로서 강제 동원된 일야말로 그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고 잔혹한 것이었다(정대협,1992:16).”

이 밖의 많은 정대협의 성명서를 비롯한 문건들에 의하면,⁴⁾ 이 운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의 피해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페미니즘이 기본적 가치지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대협 조직에서 남성회원들의 참여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는 것⁵⁾은 이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여성주의 관점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한국 여성단체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⁶⁾ 이후 곧바로 이어진 일본의 여성단체 및 아시아 피해국 단체들과의 연대는 이러한 페미니즘이 기반이 된 것이었다.

실제로 일본군에 의해 피해 당한 여성은 성격이 다른 세 집단으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가장 다수를 점하는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여성, 두 번째는 필리핀, 중국 등 일본군 점령지의 여성, 그리고 세 번째 일본여성이다. 일본여성이 일본 ‘국가’에 의한 피해자이며, 점령지 여성이 ‘전시 하 타 민족’에 의한 피해자라고 한다면, 식민지 조선의 여성은 제국주의/식민주의의 피해자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 피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이 세 집단에 대하여 매우 다른 사회적 변수들이 개입하면서 서로 성격이 다소 다른 극심한 피해를 형성했던 것이다.⁷⁾ 이 서로 다른 사회적 변수들 때문에 이 세 집단의 여성 피해자들의 지향은 각기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은 이들을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의 피해문제는 제국주의/식민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비로소 보다 실체에 가까워 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이 운동의 참여자들은 동의하고

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료집 참조.

5)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성단체로 회원 단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실행위원, 실무자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남성 참여가 곧바로 페미니즘의 훼손이라고 하는 인식은 물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정대협 내에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그러한 결정은 어느 정도 여성운동의 경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진다.

7) 이런 점에서 당시 법적으로 피해여성은 일본-조선인과 점령지 여성으로 나뉘었다고 본 한 일본 여성학자(上野千鶴子, 1998)의 지적은 이 문제를 보는 예민한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있다. 즉 군 위안부 동원은 1930년대 말 일제의 국민총동원령에 의해 이루어진 병력동원, 노동력 동원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성(性)동원이었으며, 신사참배, 창씨개명 등과 함께 이루어진 민족(성) 말살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연구 차원에서 이 문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성-민족 변수의 결합에 의한 이중 피해로서 접근되고 있으며,⁸⁾ 식민주의와 여성비하가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운동의 차원에서는 민족주의의 지향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민족갈등과 결합되어 일어나기 쉬운 다른 여러 여성피해, 특히 전시 하 여성피해 문제에서와 같이 매우 자연스럽게 페미니즘과 결합되어 왔다. 후에 정대협 운동이 지니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지향에 대하여 간혹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야마시타, 1999), 그것은 그다지 정확한 관찰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부정확하다는 것은 군 위안부문제 형성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운동이 그로 인해 확산되고 입체적이 되고 있는 점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운동이 페미니즘과 함께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지닐 수 있던 것은, 한말과 식민지 시기 이래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여성운동이 다른 어깨에 사회변혁의 짐을 짊어지고 왔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바깥으로는 국제여성운동으로, 안으로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페미니즘은 국제 연대의 기반이 되었고, 민족주의는 국내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두 지향이 연대의 대상에 따라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교차되어 나타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두 지향이 무리없이 결합되어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한 점이 초기 한국 군 위안부문제 운동의 강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운동의 목표를 희생자에 대한 원조, 왜곡된 역사의 규명, 궁극적으로 강대국이 약소국 여성에 가하는 폭력의 방지에 두었고, 그러한 목표 아래 여러 단체들과 연대를 넓히게 된 것이다.

III. 한국의 타 시민단체와 협력/ 일본 여성단체와 연대

이와 같은 한국 여성운동의 다중적 가치지향은 다소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보다 광범위한 연대를 이루어 운동을 확산시켰다.

8) 그러나 성-민족 변수의 '결합' 자체를 여성주의적 입장의 약화로 보고, 민족/식민주의/제국주의 등을 가부장제, 여성비하의 하위 변수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 한국내 타 시민단체로의 확산: 민족주의와 인권관념에 기초한 연대

정대협은 여성 중심의 조직 운영방식을 고수하면서, 남성 국제법학자, 역사학자를 법률전문위원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등의 외곽 조직을 만들어 포함시켰고, 모금과 같은 범국민적 호소가 필요할 때는 남성을 포함한 명망가들로 애드혹 조직을 만들었다. 요시미 요시아키 등의 일본 역사학자들과 교류한 진상조사연구위원회에는 국내 유수의 남성 역사학자들이⁹⁾ 포함되었으며, 유엔 활동 등에 도움을 준 법률전문위원회는 국내의 국제법학자 및 변호사가 대거 동원되었다.¹⁰⁾ 진상조사연구위원회는 1993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학자들과 합동 심포지엄을 가진 후 1997년에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진상>이라는 책을 묶어내고 실질적으로 해체되었으며, 법률전문위원회도 부정기적으로 자문을 위해 모이다가 위 책에 법률 부분을 집필하고 자연 소멸되었다. 모금을 위해 1992년에 정대협과 별도로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모금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고 공동의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위원으로 남성을 위촉했다.¹¹⁾ 이렇게 남성 전문가들의 협력을 얻어낸 방식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1996년 10월에 국민기금에 대항하여 모금활동을 벌인 '일본국민기금을 반대하는 강제 연행 당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와 '일본군 성노예 국제법정' (2000년법정으로 약칭)¹²⁾을 위한 여러 활동에 남성들이 한시적으로 참가했다.

한편, 한국내에서 여성단체 이외의 여러 시민단체들로 이 문제가 파급되었다. 1970년대에 설립되어 징용, 징병 문제에 전념해 온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군 위안부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으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가 UN활동과 청문회등을 정대협과 같이 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희생자를 위한 공동주택인 '나눔의 집'을 설립했고, 불교지식인과 역사학자가 '과거청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중앙병원에서 희생자에 대한 무료진료를 행하고, 기타 여러 민간인들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국내에서의 이러한 운동의 확산은,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페미니즘(여성의

9) 강만길, 이만열, 조동걸 등.

10) 이장희, 김찬규, 박원순 등.

11) 공동의장은 서영훈, 윤정옥, 운영위원장은 이수성, 그밖에 강원룡, 송월주 등 많은 남성이 참가했다(이효재, 1997: 342-343).

12) 2000년 12월 7일 저녁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8-10일 사흘 간의 본 법정 및 11일 국제공청회, 12일의 판결로 폐막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일본 내의 재판이 패소되고, UN, ILO 등의 국제기구의 권고가 일본정부에 의해 이행되지 않자, 한국, 일본 및 아시아 단체들이 국제 NGO의 도움을 받아 개최한 민간법정이다. 이 법정에서 판사로 위촉된 세계 유수의 법률가들은 천황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최고 전범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일본 정부에게 배상 및 책임자 처벌의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했다.

인권)으로부터 보다 일반적인 인권의 관점으로 시야가 넓어진 것이며, 민족주의의 정서가 이를 묶어주고 있다고 볼 수있다. 1980년대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민족수난의 희생자에 대한 관심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운동이 자연스럽게 이 운동과 합류된 것도 그러한 기반 위에서의이다. 간혹 反페미니즘의 민족주의 단체와는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었으나,¹³⁾ 대체로 무리없이 연대를 이루었으며, 최근 일본 왜곡교과서문제를 위해 만들어진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정대협이 다른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¹⁴⁾

2. 일본 여성단체와의 연대와 갈등:

페미니즘에 의한 연대와 민족주의 간의 갈등

한국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곧바로 일본의 여성단체들이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교회여성연합회와 매춘관광문제를 위해 일했던 ‘매매춘문제에 도전하는 회’가 정대협 출범 전부터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에는 몇개의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행동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후 많은 여성단체가 정대협과 구체적인 협력을 이루었다(정진성, 1998). 이들의 가치지향은 대체로 페미니즘이며, 그것이 우리 운동과의 연대의 기반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는다는 점에서 목표를 공유한다.

그러나 우리 단체의 민족주의적 경향 때문에 미묘한 갈등이 있기도 했으며, 일본 여성단체의 민족주의 경향은 연대의 파국을 결과하기도 했다. 예컨대 1992년 제1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한 일본여성운동가는 한국에서 민족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경우 함께 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1993년 8월 일본정부의 2차 조사 발표에 대한 논평에서 한국의 정대협이 식민지 및 점령지 여성에 대한 차별적 강제동원과 착취를 무시한 일본정부의 의도를 다구친데 대해 일본 여성단체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한편, 1993년경부터 배상문제로부터 책임자 처벌의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정대협 운동에 대해 적지 않은 일본의 여성단체들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미 죽거나 대단히 연로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며, 더욱이 최고 책임자인 친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이었다. 이때 나타난 균열은 후에 ‘국민기금’문제에 이르러 완전히 파국을 이루었다. 많은 단체들이 국민기금에 동참하고 정대협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여성네트워크’나 ‘재일한국민주여성회’ 등의 재일한국인 여성단체 및 일본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재일한국인들의 지향은 한국

13) 예컨대 식민지 시기에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단체(광복회 등)에서는, 자신들과 이 성적 피해자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독립기념관에 군 위안부 문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던 정대협의 시도가 좌절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4)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2001년 4월 결성).

여성단체와 마찬가지로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의 이중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를 위해 조직된 북한의 단체와의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여성단체의 민족주의 지향에 대해 오히려 일본 여성단체보다 예민하고 엄격하다.¹⁵⁾ 또한 한국에서 이 문제를 위한 여성의 활동이 정대협이라는 단일 여성단체에 집중하고 있는데 비해 재일한국인 여성들은 여성단체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남성들과 함께 이 문제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들의 주변적 위치가 보다 개방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¹⁶⁾

IV. 일본 시민단체의 참여/ 북한 및 아시아 타 피해국 단체의 참여

1. 일본 시민단체와의 연대 및 갈등:

평화주의, 인권에 기초한 연대와 민족주의에 의한 갈등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여성단체에서 시작된 운동이 다른 시민단체로 확산되었다. 한국에서 여러 운동단체들을 묶는 기반이 인권의 관념과 민족주의라고 한다면, 일본 시민단체들의 공통분모는 인권과 평화주의라고 볼 수 있다. 평화헌법개정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변호사집단, 다양한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시민단체(예컨대, 富山중군 위안부를 생각하는 모임), 평화운동을 위한 전국단체(예컨대, Asia Afirca Latin America) 및 이 문제를 위해 새로 결성된 ‘전쟁책임자료센터’ 등이 이 문제에 뛰어들고 있다. 일본의 전쟁책임 수행과 재발방지를 위한다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는데서 이들의 지향을 평화주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도라지회’, ‘송신도씨의 재판을 지원하는 회’ 등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여성 뿐 아니라 광범위한 남성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단체가 군 위안부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일본의 전쟁책임문제를 위해 정대협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을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하는 운동의 동기를 보다 전면에서 부각시키는 단체나 개인도 있다. 결국 일본인들의 운동 참가에 크게 든 이러한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위 ‘진보적’ 민족주의를 보다 직접적으로 내세우는 단체나 개인은 대체로 미묘한 사안에서 한일 단체의 균열을 만들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국민기금’으로 합류된 단체나 개인들의 성향이 대부분 그러했는데, 그들은 범죄에 대한 책임이행으로서의 정부 배상과 책임자 처벌이 최종적으로 중요하지만, 민간이라도 후원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양심’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관계자

15) 예컨대 金富子(1994)와 야마시타(1999)의 저서 등.

16) 그러나 간혹 부정확하고 공격적인 비판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면담). 이렇게 일본인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선의’의 민족주의가 궁극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에서 일본이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인해 이루어진 인권침해 문제에서 인권개념이나 평화주의가 보다 근본적 가치가 되지 않는 한, 민족주의는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수준에 존재하더라도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을 해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한국 단체와의 연대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경험적 사실이다.¹⁷⁾ 따라서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의 ‘진보적’ 민족주의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지만, 일본 내에서 이와같이 운동이 다각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다른 한편에서 이 운동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이 형성되어, 일본내의 이 운동을 압도한 위에 사회 전반에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었다. 자유주의사관운동 또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으로 대표되는 이 반대운동은 기존의 우익 운동을 포괄하면서 일본사회 전체의 보수화를 주도해갔다. 전쟁책임을 축으로 한 이 일본의 비판운동과 신민족주의의 대립구도는 현대 일본사회운동의 새로운 양상이다.¹⁸⁾

2. 아시아 타 피해국 NGO의 참가: 페미니즘과 인권에 기초한 연대

일본단체들에 이어 아시아 타 피해국들에서도 곧 지원단체가 결성되고 피해자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참가하여 지금까지 가장 적극적인 참가를 하고 있는 것이 필리핀 단체이며 그 다음은 대만 단체이다. 그보다 늦게 중국이 합류하여 연구와 활동이 활발하며, 그밖에 인도네시아가 간헐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곧바로 참가한 필리핀의 경우, Asian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 등 매우 활발하게 국제적 네트워크를 축적해온 기존의 여성단체가 이 문제를 흡수한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도 여성 중심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2000년법정 등 특별한 경우 남성 전문가를 참가시키는 방식을 취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아시아연대회의’¹⁹⁾의 주요 참가자이며, 2000년 12월에 동경에서 개최한 2000년법정에서 국제 연대의 책임을 맡은 핵심 성원의 하나인²⁰⁾ 필리핀의 가

17) 필자가 1990년대 중반에 한국 정대협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활동해온 한 지식인을 면접했을 때,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가 라는 필자의 질문에 그는 ‘그야 물론 일본을 보다 양심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일본을 한 단계 나아간 수준 높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라고 지체 없이 답변했다. 그 후 그는 다소의 개인적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정대협의 활동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돌아섰으며, 단독으로 일본과 국제 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면담 결과).

18) 이에 관해서는 정진성(2001)의 저서 제1장과 5장을 참조할 것.

19) 1992년 8월에 제1차 아시아연대회의가 시작되어 올해 동경에서 이루어진 회의에 이르기까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일본 및 아시아 피해국들이 참가하고 있다.

20) 정진성(2000)의 저서 참조.

치지향은 매우 명백하게 페미니즘이다. 그것은 이 운동을 이끄는 주요 단체가 세계의 여러 여성단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페미니즘 운동을 해왔던 단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필리핀 여성의 피해가 한국의 경우와 다른 구조 속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식민지배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체로 한 여성이 겪은 피해의 기간이 한국 피해자에 비해 짧으며(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1994), 일본에 대한 비판이 제국주의/식민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전쟁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필리핀 여성의 경우는 국제 장에서 군 위안부문제를 위치시킨 맥락인 전시 하 여성 폭력 문제의 보다 전형적 피해의 유형이다.²¹⁾

대만의 경우는 한국과 필리핀의 경우와 모두 다르다. 한국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였으나, 일본 식민지배의 성격이 다르고 대만인들의 일본에 대한 의식도 다르다.²²⁾ 정용이 대부분 식민지 조선에 집중하여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 위안부 강제동원도 주로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해의 성격은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나 강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점 때문인지, 대만의 운동에서는 뚜렷한 페미니즘도 민족주의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여성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피해자 원조단체를 만들어 주로 피해자를 돕는 활동해왔으며(Taipei Women's Rescue Foundation), 남성변호사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와서, 국민기금을 반대하여 정부가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지원한 것이 한국의 경우보다 앞서 1997년에 이루어졌다.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과 여성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도 물론 보이지만, 대만의 운동은 전반적으로는 인권 관점에 선 피해자 원조운동이라고 보여진다.

중국의 참가는 다소 늦었는데 일단 합류한 후에는 매우 적극적이다. 이것은 중국정부의 태도와 밀접히 연관된 것이다. 초기 전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던 중국정부는 내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조차도 억압했다.²³⁾ 그러나 개방정책이 경제발전에 성과를 올리면서 자신을 회복한 중국정부의 대일본 태도가 변화되면서 연구가 활발해졌다. 흥미롭게도 중국의 운동은 남성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의 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hanghai Research Center on Comfort Women 등). 따라서 여성들도 다수 참가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중국

21) 물론 구유고, 르완다,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의 체계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특수성을 지니는 것이다.

22)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통합(integration)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따라서 문화적 뿐 아니라 경제적 압박도 한국에서 더욱 강했다. 다른 나라의 오랜 피지배를 경험한 대만의 역사도 한국과 다르다. 이러한 제반 차이는 한국인과 대만인들의 반일 의식에서 크게 다른 점을 결과했다. 식민지 시기 민족주의운동이 대만보다 한국에서 훨씬 강했으며, 해방 후 일본에 대한 인식도 대만인의 경우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Gold, 1981; Chung, 1984 등).

23) 1990년대 초에 정대협에 매우 조심스럽게 정보를 주고 상황을 물었던 중국학자가 있었으나, 정부의 탄압이 두렵다며 곧 소식을 끊었다.

의 운동은 피해자와 위안소를 발굴하고 그것을 알리는 작업에 집중하며, 그 밖의 활동은 주로 일본, 한국 등과의 연대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군 위안부 문제를 단독으로 다루기보다, 남경대학살 등 다른 문제도 포함하여 전쟁책임문제 전반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아시아 뿐 아니라 미국에서 이 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수 백 명의 학자, 활동가를 초청하여 2000년 3월 상해에서 개최한 심포지엄²⁴⁾은 중국 운동의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2000년법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운동의 뚜렷한 가치지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다만 ‘중국’이 당한 전쟁 피해를 밝힌다는 아카데미즘, 약간의 민족주의 및 평화주의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남성변호사가 아시아연대회의에 한 두 차례 참가한 정도이다.

3. 북한의 참여: 민족주의에 기초한 연대

북한의 참가는 한국 운동의 국제화로 인한 충격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의 연구성과와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시작되었다. 남북 직접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로 일본단체 및 재일교포의 중개를 통해 한국 단체와 연결되었다.²⁵⁾ 북한이 이 운동과정에서 처음 한국 운동단체와 대면한 것은 1992년 동경에서 열린 국제공청회²⁶⁾에서였는데, 이때 북한 대표 및 피해자의 발표는 북한의 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후 UN등 세계의 여러 곳에서 열리는 군 위안부 관계 회의에 북한 대표들의 참가했으며, 공식 발언 외에도 남북이 함께 참가하여 NGO 포럼을 조직하기도 했다. 2000년 법정에서는 한국측과 하나의 기소팀²⁷⁾을 만들어 법정에 섰다.

이러한 북한의 한국과의 강한 연대는 무엇보다도 민족주의에 기초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남한에 비해 북한측의 입장에서 페미니즘이 약하고 민족주의가 강하게 돌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운동방식과도 관련되는데, 그것은 군 위안부문제를 위해 형식적으로는 정부조직이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

24) 2000.3.30~4.1의 ‘중국위안부문제국제학술연구회’를 조망하는 회의였는데, 운동보다 연구에 치우쳤고 페미니즘이나 다른 어느 한 관점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다.

25) 1992년 정대협이 처음 UN 인권소위에 참석했을 때부터 조총련계 재일교포팀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과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민단체 여성들과의 연결도 중요해져서 2000년 법정에서 남-북-민단체-총련계의 연결은 가히 민족통일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26) 1992년 12월 9일 동경에서 열린 국제공청회는 필리핀, 네델란드, 중국 등의 활동가와 피해자가 참여했고 UN의 전문가도 참가한 군 위안부문제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였다(The Executive Committee International Public Hearing, 1993).

27) North and South of Korea로 기소팀의 이름을 붙여 하나의 Korea 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중군 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종태위)’를 설립하여 피해자 신고도 받고 이 문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운동의 기본적 성격을 규정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남한과 달리 북한의 종태위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숫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히려 남성이 주도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또한 NGO들간의 모임 참가 및 의사 개진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 아시아연대회의 등에 종태위 대표가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거나 평양 모임에 한국측 대표 참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북한 정부가 내린 결정이었던 것이다. UN에서 정대협과 한국정부의 입장이 간혹 엇갈리는 것에 비해, 북한의 경우는 종태위와 북한정부의 행동이 일치되고 있다. UN에서 북한정부는 예외없이 강경하게 발언하는데²⁸⁾ 내용은 주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입장에서 페미니즘보다 민족주의가 강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그 예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북한 정부나 종태위가 준비하는 발표문에는 일본을 적대시하는 매우 강한 용어가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군 위안부문제의 본질을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말살 정책에서 주로 찾고 있다. 2000년법정에서 남한측과 다소 의견이 달랐던 점 중의 하나가, 북한측에서 준비한 처음 도입 부분에 식민지 정책이 너무 길게 소개된 것이었다.

V. 국제 NGO들과의 연대

군 위안부문제를 위한 국제운동이 대면한 세계사회의 상황은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양대 시각인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설명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²⁹⁾ 즉 현실주의 시각에서 직시하는 패권주의가 여전히 기본 흐름인 가운데, 이상주의에서 주장하는 도덕적 가치의 증진도 낮은 수준이지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UN의 역할이 증대하고, 국제법이 발전되고, NGO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군 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일본정부를 압박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국제 압력이었다. 일본의 우익들이 가장 흥분하는 것은 UN, ILO 등 국제기구와 서

28) 1993년 5월 UN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 북한정부는 처음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한 이후 대부분의 인권위원회, 인권소위 및 실무회의에서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UN의 각 부분에서 활발하게 발언하고 정대협 대표들의 활동을 도왔으며, 이에 대해 반대 발언을 하는 일본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 들어 일본정부와 함께, 국제장에서 일체 공식 발언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북한 정부만이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29)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는 패권 국가가 자국의 이해를 위해 활동하는 무정부 상황이라고 보며(Hobbes, Carr, Morgenthau, Waltz, Krazer 등), 이상주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제적 노력(Gilbert), 국제기구의 가능성(Keohane) 등에 대한 믿음에서 있다.

구 (아시아가 아니라) 국가들이 일본의 윤리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³⁰⁾ 이 운동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기는 서구를 포함한 세계의 NGO들과의 연대를 이룬 것이며, 그 계기는 UN과 ILO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들 국제기구들은 법적 판단과 조사, 효과적 권고 등을 끌어내는 주체로서 그 일차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세계의 NGO들과 만나고 연대를 만드는 장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제 NGO와의 연대는 대체로 UN을 배경으로 한 여성단체들과의 연대와 ILO를 배경으로 한 세계의 노동조합들과의 연대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가 페미니즘에 기초한다고 한다면, 후자는 보다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1. UN을 기반으로 한 연대: 페미니즘에 기초한 연대

정대협 및 일본단체가 1992년 처음으로 이 문제를 UN에 가져 갔을 때, 이에 협력한 단체는 2차대전시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캐나다 전쟁포로 단체들이었다. 평화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 단체와의 연대는 오래 가지 않았다. 이 운동이 여성의 인권, 특히 전시 하 여성침해의 문제로서 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을 위치 지으며 활동을 전개해가면서 그 단체들과는 멀어지고, 여성단체들과의 연대가 강화되었던 것이다. 때마침 세계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던 전쟁과 내란에서 여성 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면서, 군 위안부 문제는 그러한 최근의 문제들의 단죄되지 않은 역사적 뿌리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정대협은 그러한 문제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과 자연스럽게 연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대에 기초하여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에서 중대한 보고서를 이끌어냈으며,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대를 더욱 강화했다. 1996년에 인권위원회의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hdika Coomaraswamy)의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포함된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UN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58개의 여성단체가 International Alliance 를 형성했던 것은 이 문제가 페미니즘에 기초한 국제 NGO와 얼마나 광범위하게 연대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보다 보편적인 인권의 관념, 즉 여성문제라기 보다, 심각한 인권침해의 형태로 보는 입장을 갖는 단체도 있다. 정대협이 1992년에 활동을 시작한 UN 기관 자체는 이것을 인권문제의 하나로 보아 인권위원회에서 취급하며, 1994년에 강력한 보고서를 낸 국제변호사협회(ICJ)와 우리의 UN 활동을 돕는 세계교회협의회(WCC) 등이 그렇다.

보다 보편적인 인권의 관념이나 평화주의는 연대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지만,

30) 예컨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한 인사는 군 위안부 문제로 일본이 세계로부터 비판받는 것을 '복수(復讐)의 국가가 연합하여 한 나라를 공격하는 새로운 전쟁'이라고 묘사하며 울화를 터뜨렸다(江藤, 1998: 102).

그 연대가 긴밀하고 강한 것이 되지는 않으며, 페미니즘이 보다 중요한 연대의 기반이라는 것을 국제 NGO들과의 관계는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제 NGO 들은 한국을 비롯한 피해국에서 보이는 민족주의의 작은 표시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권침해의 범죄자로서의 일본정부에 대한 단죄는 전쟁재발, 범죄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구체적 방안에서 한국 단체들과 차이가 없으나,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제국주의/식민주의라는 매우 중요한 측면을 놓치고 있는 것은 심각하다.

2000년법정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및 아시아 피해국 및 네델란드 NGO가 중심이 되어 만든 군 위안부정책을 단죄하는 법정이었는데, 이 문제의 현재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큰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법정이 끝난 후 공청회의 형식으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 하 여성폭력문제들에 대한 고발의 장을 만들었다. 이것은 마치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의 보고서가 이 문제를 전시 하 여성폭력 문제의 맥락에 위치시킨 것과 같은 관점에서, 바로 그 국제 연대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공청회를 통하여 이 문제가 부각됨과 동시에 북한과 중국 기소팀이 주장한 일본'제국주의'의 논점은 사상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와 인권소위의 게이 맥두갈(Gay McDougall) 전시 하 체계적 강간, 성노예제 및 유사성노예제에 관한 보고서가, 처음 보고서에서 최종보고서로 가는 동안 최근의 문제들에 의해 군 위안부문제가 가려져 약화되어 간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 페미니즘에 기초한 국제연대의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다.

2. ILO를 기반으로 한 국내 및 국제 연대

1995년 한국노총이 군 위안부문제를 ILO 29호 조약인 강제노동조약 위반문제로 ILO에 제소하면서, 연대의 새로운 차원이 이루어졌다. 먼저 국내에서 남성들이 주도하는 노동조합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점이며, 다음으로 세계의 노동조합들과 연대하게 된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열성적으로 이 문제를 위해 보고서를 만들고 여러 노조대표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힘을 기울였는데,³¹⁾ 이들의 기본 관점은 일본제국주의의 우리 민족에 대한 말살정책 비판이었다. 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기초로 하여, 1998년 보고서 제출시부터는 징용 노동 문제를 함께 다루기 시작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양 노조 모두에서 여성국이 아니라 남성으로 구성된 국제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도 그러한 가치지향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

세계의 노조들과의 연대는 ILO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노

31) ILO에서의 군 위안부문제를 위한 활동에 관해서는 정진성(2001)의 저서를 참조할 것.

사정 삼자회의인 ILO에서 노동자 그룹의 의견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노조(聯合, 령고)의 민족주의적 강한 반대를 뚫고, 2001년 총회시 열린 노동자 그룹회의에서 세계 노조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을 결의한 것은 군 위안부 강제연행과 성 착취가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때문이다. 강제노동조약은 ILO의 여러 조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몇 개의 조약 중 하나이다.

흥미로운 것은 피해국 아시아 노조로서는 중국 노조만이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협력하며, 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는 네델란드 노조가 처음부터 강력하게 한국 노조를 도왔으며, 여러 유럽의 노조들이 이를 지지했다. 이것은 UN에서도 나타나는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제1세계의 지지와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제, 문화적 특수성을 주장하는 제3세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상기시키는 것으로서,³²⁾ ILO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세계 노조들의 보편적 인권 관념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VI.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NGO의 연대와 갈등

이상의 논의에서 군 위안부문제를 위한 운동이 한국의 여성운동으로부터 일본여성운동과 국내 시민운동을 거쳐 아시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가치지향도 핵심적인 것으로 페미니즘과 민족주의로부터 보편적 인권의 관념과 평화주의를 넓은 외곽에서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전개되어온 운동에 대하여, 일본내에서 민족주의에 기초한 반대운동도 확산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연대해왔던 단체들의 이탈도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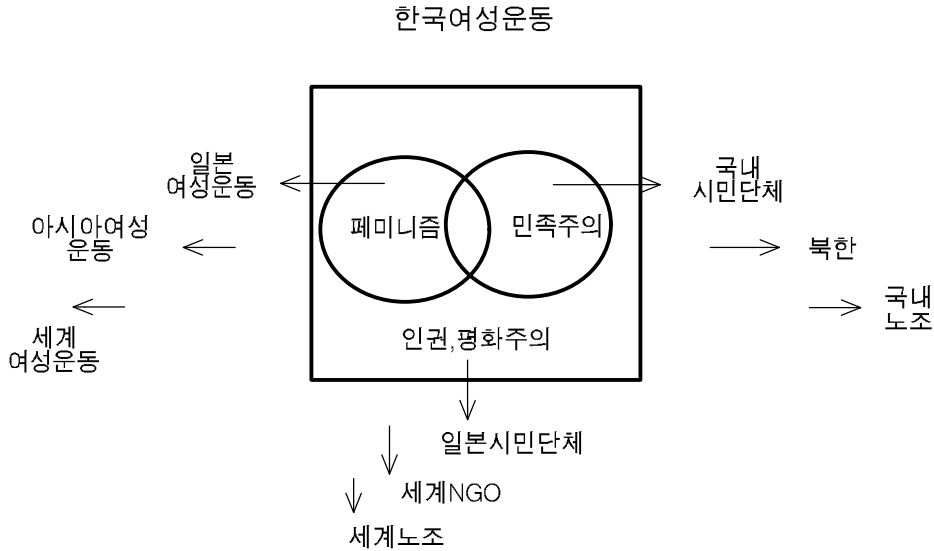
1. 운동 확산과정의 가치지향

한국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 군 위안부문제 운동의 가치지향은 핵심적인 것으로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와, 그것을 넓게 포용하며 연대를 이끄는 보편적 인권의 관념과 평화주의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에 기초한 연대가 일본 여성운동과 한국 시민운동으로 각기 먼저 이루어졌으며, 이후 아시아 및 세계 여성운동으로 페미니즘에 기초한 연대가, 북한 및 국내 노조로 민족주의에 기초한 연대가 확산되었다. 페미니즘과 민족주의는 매우 강한 연대를 만들고 있다. 반면, 보편적 인권과 평화주의에 기반한 연대는 느슨하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연결되는 경향이 보인다. 일본의 시민단체로부터, 세계 NGO 및 노조로 확산된 이 운동은 일부 일본단체를 제외하고는 여성단체나 북

32)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해서는 정진성(2000)의 저서를 참조할 것.

한 및 국내 단체들의 운동에 비해 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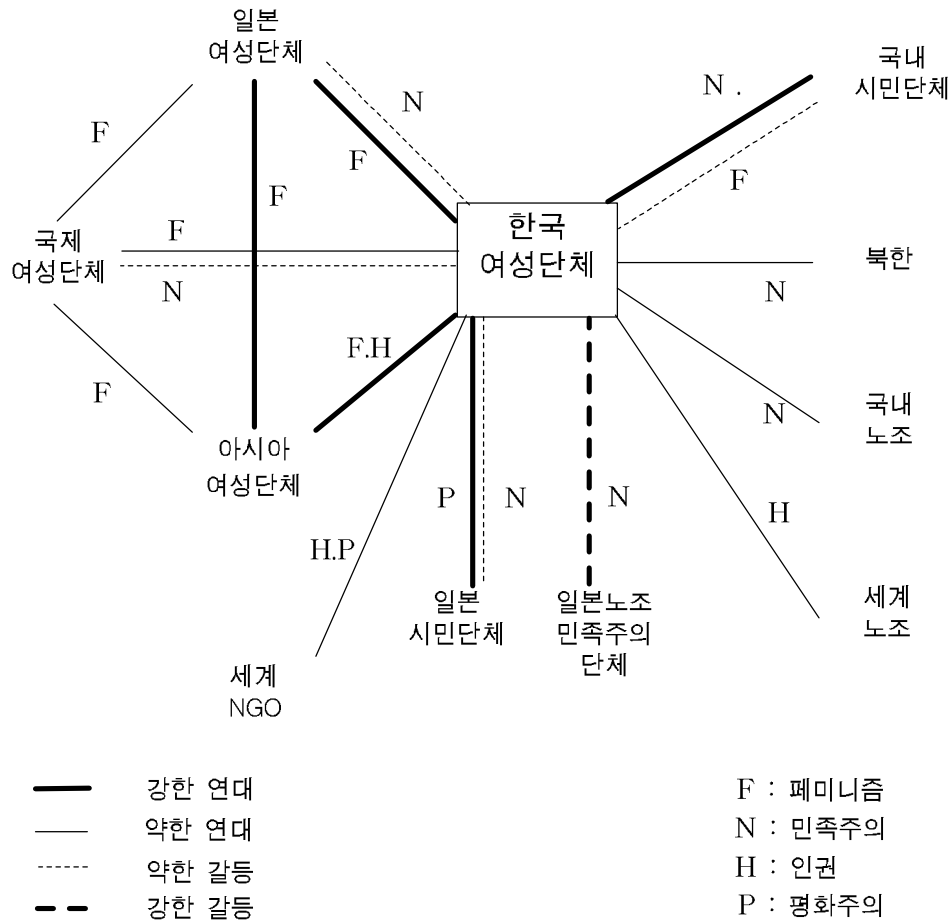
그림 1. 운동의 확산



2. 운동단체들의 연대와 갈등

운동의 핵심은 역시 한국여성단체이며, 그와 강한 연대를 이루면서 운동의 윤곽을 이루어가는 것은 한편으로 일본 여성단체와 아시아 피해국 여성단체이며, 다른 한편 국내 시민단체와 일본시민단체이다. 다른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한 반대운동이 일본의 새로운 민족주의운동을 이끌고 있는 것은 이 운동이 일본 내에서 일으키고 있는 반항의 크기를 짐작하게 한다. 민족주의로 연대하는 국내 단체가 간혹 여성단체의 페미니즘으로 갈등을 빚는 반면, 일본 단체들과는 민족주의로 인한 갈등이 일어난다. 이 운동에서 북한과의 연대는 특기할 만하며, 국제 NGO들과의 연대는 느슨하지만 여론 형성에 큰 힘을 준다. 노조들과의 연대는 이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그림 2. 운동단체들의 연대와 갈등



VII. 맺음말

군 위안부문제해결운동의 전개과정에서 특기할 것은, (1)단일한 문제에 여러 다른 가치지향을 갖는 시민단체들이 나름의 지지자를 모으며 연대하여 운동하고 있다. (2)하나의 단체가 다중의 지향을 갖는다. 특히 우리 단체가 페미니즘(국제장에서)과 민족주의(국내와 對일본정부를)를 국면에 따라 강도를 달리 나타내며 운동을 전개한다. (3)대체로 페미니즘운동이 남성들과 같이 하는 다른 사회운동과 결합하기 힘들며, 특히 제3세계에서 민족주의는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페미니즘을 억압하는 주요한 가치로 되고 있는데 비해, 이 운동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지향이 별다른 갈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4)국제연대가 운동의 진전과정에

서 중요하게 이루어진다.

모든 사회문제가 그렇듯이 여성문제도 다른 사회문제와 분리되어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문제가 민족문제와 계급문제 그리고 국가對 시민사회의 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페미니즘 운동으로서의 군 위안부문제 해결운동이 민족주의, 휴머니즘, 평화주의 등의 다른 지향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는 것은 페미니즘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페미니즘 운동으로서의 군 위안부문제해결운동은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를 잘 포괄하여 운동을 확산시켰으나, 이제 일본의 민족주의와 맞서고 있다. 일본내의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간의 갈등, 국제단체들의 적극적 이해, 보다 많은 지지자의 획득 등의 상황 속에서 운동의 새로운 구도가 정해질 것이다.

《 참고 문헌 》

- 야마시타 영애. 1999. 「한국의 위안부 문제와 민족주의」.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교포』. 서울대출판부. pp. 248-284.
- 이승희. 1990. 「인간해방·여성해방을 향한 80년대 여성운동」. 조희연 편. 『한국 사회운동사』. 서울: 죽산.
- 이효재. 1989. 『한국의 여성운동』. 서울: 정우사.
- _____. 1997.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편,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진상』. 서울: 역사비평사. pp.311-358.
- 정진성. 1996. 「여성억압기제의 전통과 근대」, 『창작과 비평』 94. 서울: 창작과 비평사. pp.155-167.
- _____. 1998. 「일본의 평화운동: 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1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pp.63-88.
- _____. 2000.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인권재단 편. 『21세기의 인권』. 서울: 한길사. pp.93-116.
- _____. 2001(a). 「ILO에의 문제제의 구조」.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pp.61-80.
- _____. 2001(b). 『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 서울: 나남.
- _____. 2001(c). 「군위안부/정신대의 개념문제」.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제60집.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34-59.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2.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강제로 끌려간 한국여성들: “정신대(군대위안부문제)”」. 미동부지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정신대문제 자료집』. pp.16-18.

- 江藤淳. 1998. 「日本第二の敗戦」. 『文藝春秋』1998年 1月號, 75號. pp.94-104.
- 金富子. 1994. 「從軍慰安婦問題 - 運動とその 意味」. 原ひろ子 外 編, 『ジェンダー』. No.2.
- 上野千鶴子. 1998. 『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 東京: 青土社.
- Chung, Chin-Sung. 1984. *Colonial Migration from Korea to Jap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Gold, T. B., 1981. *Dependent Development in Taiwan*.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1994. *Comfort Women: An Unfinished Ordeal*.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 The Executive of Committee International Public Hearing. 1993. *War Victimization and Japan*. Tokyo: Toho Shuppan.

Cooperation and Conflicts among the NGOs of Korea, Japan and Western Countries: Value Orientations of NGOs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Chung Chin-su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Colleg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began to attract public interest and various social movements began to deal with it at the end of the 1980s. These social movements have developed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the raising of the issue by the Korean women's movement → cooperation of other Korean civil organizations → solidarity with the Japanese women's movement → participation of the Japanese civil movement → solidarity with civil movements in other victimized Asian countries →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NGOs. There are no significant chronological gaps between the different stages, but each subsequent stage can be identified from preceding ones by its expansion of the scope and value orientation. Korean women's organizations developed their movements based on feminism and included nationalism as well.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movement, they used a common basis of feminism to establish links with women's movements in Japan or other victimized Asian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a broader conception of human rights, on which this movement has depended, has brought in the assistance of the world human rights organizations. At the same time, the Korean women's organizations have attracted support from the Korean public and civil organizations by appealing to nationalism. Solidarity with North Korea is forged on the same basis. The respective nationalisms of Korean and Japanese organizations sometimes create conflict within the movement, and feminist solidarity systematically disregards the aspect of imperialism / colonialism which is inseparable from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These problems require close and careful analysis in the discussion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번지.
Tel. (02)880-6415(O), E-mail: chungcs@plaza.snu.ac.kr